

제품 및 메인터넌스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자재조달 총괄부는 다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자재부는 일본 국내의 범용품을 약 600개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달부는 일본 국내의 서플라이어 약 100개사에서 각 사업부 설계의 맞춤형 제품을 조달하고, GBL 조달부는 해외 15개국에서 100여 개의 부품 등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조달부의 주요 서플라이어 8개사를 TS(톱 서플라이어)라고 부르며, 매년 TS8 기업의 경영자를 초대하여 미우라공업 및 그룹 각사의 경영자와 경영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사의 정책 설명과 기술대회 표창, TS 활동보고(품질관리, 비용절감, 납기준수) 등을 실시하여 보다 좋은 모노즈쿠리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PC(프로세스 체인지) 교류회를 주최하고 삼현주의에 근거하여 설계자가 직접 서플라이어의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가공개선 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가. 현장을 알고, 서로를 알고, 함께 지혜를 짜내어, 가공 방법이나 재료 변경 등 설계부터 재검토합니다. 그 결과, 서플라이어의 전력 절감, CO₂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플라이어와 최고의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Win-Win 하는 것입니다. TS8 기업들은 에히메현을 중심으로 한 시코쿠 지역의 회사들로, 창업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우라의 지역 공헌의 한 형태이며, 지속 가능한 모노즈쿠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PROCUREMENT DIVISION

자재조달 통괄부

TO YOU \

앞으로도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